

은퇴 후 生을 말하다 <7>

<제2부> 인생 2막 여는 사람들

④ 시니어 성악가들

연륜의 미학이자 행복의 무대
“퇴직 후 첫 연주회 멋진 추억”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문공연도



수 십 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한 기세관·유창중·임동운(왼쪽부터)씨는 이제 ‘테너’, ‘바리톤’의 이름을 달고 인생 2막을 연주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노래하고 연주하라... 음악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다

국내에서 최근 ‘핫’(Hot)한 인물 중 한 명은 ‘할담비’ 지병수(77) 할아버지다.

지 할아버지는 지난달 KBS 1TV ‘전국노래자랑’ 서울시 종로구 편에서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자신만의 색깔로 불러 폭발적인 화제가 됐다. 그는 연일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주목을 받다가 같은 달 손담비와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일을 하던 지 할아버지는 기세를 몰아 유튜브 버로 번신했다.

18년 넘게 전통무용을 한 지 할아버지는 “취미로 노래를 옛날부터 좋아했다”며 홍진영, 카라, 티아라, 채연의 팬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영상에서 “(몸을) 흔드는 젊은 노래를 좋아한다. 또 흑인 노래도 좋아한다”며 “전국적으로 경제도 침침한 데 이런 노래로 웃겠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할담비’ 신드롬에 빠진 누리꾼들은 “유쾌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흥이 난다”며 응원을 보냈다.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음악이 필수적이다. 연륜의 미학이자 행복의 무대를 선보이는 ‘시니어 음악가’ 3인을 만났다.



기세관씨

지난달 28일 오후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김복소리, 피아니스트 문지영 등 유명 클래식 스타들이 거쳐 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무대에는 나비 넥타이에 턱시도를 갖춘 초로(初老)의 연주자들이 나섰다. 이들은 유·스퀘어 문화관이 올해 4번째 열고 있는 ‘금호시니어콘서트’ 참가자들이다.

이날 출연진은 모두 만 40세 이상의 아마추어 연주자와 현직에서 은퇴한 연주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치과의사, 정년 퇴임한 교수, 금융업계 종사자, 음악학과 동문 등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 시니어콘서트의 성악부문 첫 무대는 4년 전 순천대 교수를 정년퇴임한 기세관(70)씨가 장식했다. 그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국어학자이다. 지난 1984년 순천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해 2015년 같은 대학 교수로 퇴임하기까지

국어학자 기세관씨

순천대 퇴직 후 100여차례 공연

의학자 임동운씨

가곡부르기 회원 활동·성악전공도

공직자 출신 유창중씨

합창단·성가대 무대로 새 인생

30여 년 동안 우리말을 가르쳐왔다. ‘국어음운론 연구’(2018), ‘광양방언 사전’(2015) 등 여러 책을 펴내고 30여 편에 이르는 논문을 쓰면서 우리말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려는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가곡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노래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이 됐던 지난 2010년에는 순천대에서 ‘국어학자 기세관 교수와 함께하는 한국가곡 여행’ 연주회를 열어 ‘정산에 살리라’, ‘옛날은 가고 없어도’ 등 주옥 같은 우리 노래를 선보였다. 당시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음맹’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평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꾸준히 음악활동을 해왔어요. 독창회 3회 등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무대에 서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퇴직 후 제게 좋아하는 음악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이번



임동운씨

무대를 기회 삼아 더욱 많은 활동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리톤 임동운(68)씨는 가곡 ‘그리운 사람아’와 토스티의 ‘기도’를 부르며 박수를 이어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조선대 의대 교수를 정년퇴임했다. 심혈관계 약리학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임씨는 초당약사대장, 대한약학회 학술상,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연구상 등을 받았다.

임씨와 기씨는 우리 가곡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 가곡부르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달 연주회를 여는 ‘광주전남 우리 가곡부르기’ 회원들은 10년 동안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히 위문 공연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임씨의 금호아트홀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열린 2회·3회 금호시니어콘서트에 출연했다.

어릴 적부터 형제끼리 모여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임씨는 학자답게 학구열을 불태웠다. 3년 전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아카데미아 뮤직칼레 ‘G. 도니제티’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단기 과정을 수료했다. 임씨는 “그동안 크고 작은 연주회에 출연하면서 경험을 쌓으며 배우는 과정에 있다”며 “정년퇴임 후에 맞이한 첫 연주회여서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의 대표 아리아 ‘오묘한 조화’를 호소력 있게 소화한 테너 유창중(66)씨는 1981년부터 전남도와 중앙부처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지난 2009년에는 자신의 회고록 ‘대나무처럼 살고 싶었다’를 펴내며 30여 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기도 했다. 순천부시장,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낸 그는 공직생활을 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청년시절 산에서 공부할 때 한국 가곡을 테이프를 통해 혼자 배우며 모르는 가곡이 없을 정도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3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한 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3년 동안 성가 발전과 합창 과정을 공부하며 성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칸타빌레,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광주남구합창단, 담양 성당 성가대 등에서 연주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유창중씨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시니어콘서트·임방울국악교실...

은퇴자 위한 문화예술 함께해요

은퇴자들이 부담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광주에도 다채롭게 마련돼있다.

무대에 설 기회가 부족한 ‘시니어 음악가’들에게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은 ‘꿈의 무대’이다.

올해 4회를 맞은 ‘금호시니어콘서트’는 만 40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만 참가할 수 있다. 음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음악 전공자나 은퇴 연주자가 무대를 꾸민다. 모집 부문은 피아노·현악·관악·성악으로 독주 및 합주(10인 이하) 분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한 무대인 ‘금호실버콘서트’도 있다. 금호실버콘서트는 클래식(피아노·현악·관악·성악)과 국악 부문으로 나눠 지원할 수 있다. 단체 참가는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실버콘서트는 오는 30일 열린다. 문의 062-360-8432.

매년 임방울국악제를 개최하고 있는 (사)임방울국악진흥회(남구 구동)는 월 수강료 1만원을 내면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주최하는 국악교실에는 판소리, 고법, 민요, 한국무용, 장구, 가야금병창 등 총 6개 과목이 있다. 문의 062-521-0731-2.

더불어라 광산구노인복지관(운남동)은 매년 취미여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합창·라틴댄스·라인댄스·스포츠댄스·크로마하프교실·탁구교실·민요 판소리·하모니카 교실은 노년 삶의 활력을 더해주고 있다. 문의 062-959-9004-5.

빛고을노년건강타운(남구 노대동) 역시 색소폰·통기타·플루트 등 20개 과목이 넘는 문화강좌를 ‘평생교육사업’의 하나로 운영한다. 문의 062-603-889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년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GOLD회원 모집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연회비

구분	연회비(VAT포함)	비고
개인(1년)	₩ 2,800,000	본인 1인
증정품	• 객실 무료이용권 2매 • 레스토랑 이용권 1매 • 휘트니스 이용권 4매	

